



辽宁报刊传媒集团(辽宁日报社)主管主办
(辽宁朝鲜文报(朝鲜文))编辑部出版

료녕신문

辽宁朝鲜文报

http://kr.lnd.com.cn



微信号: lns1958 微博二维码

2025년 5월 27일(음력 을사년 5월 1일) 화요일(제5823호) [금일 4면]

国内统一刊号: CN21-0001 邮发代号: 7-3

올해 전 4개월 우리 성 투자유치 열풍 지속

올해 들어 더 많은 외국기업이 료녕을 주목하고 료녕에 진출하고 료녕에서 경영하면서 료녕은 강력한 투자유치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다. 5월 23일, 성상무청 관련 책임자는 현재 전 성 투자유치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전 4개월 전 성 투자유치 실제 조달 자금은 4,186억 8,000만원으로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내자 반면, 총 2,885개 프로젝트에 3,988억 9,000만원의 자금이 유치되었다. 이는 동기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외자 반면, 전 성 신규 외상투자 경영주체는 277개, 실제 사용 외자는 197억 9,000만원으로 동기 대비 154% 증가해 고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착각과 자본 유치를 추진한 것이 전 성 투자유치 호조의 관건이다. 올해 이래 독일 헤레우스, 스위스 부르크하르트 등 다수의 세계 500대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이 잇따라 료녕을 방문하여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다. 헤레우스그룹의 석영 반도체 새 공장이 가동되었고 부르크하르트그룹의 심양공장은 첨단 압축기 등 핵심제품을 생산했으며 신다방(新达盟), SK 하이닉스 등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잇따라 자금이 조달됐다.

플랫폼 담체가 투자유치 자원에 대한 집결작용도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성상무청은 상무부의 '투자중

국' 일본역, 스웨덴역 활동에 참가해 300여개 일본, 스웨덴 기업에 우리 성 우세산업을 소개했다. 심양, 대련, 안산 등 도시는 사천, 해남, 호북 등 지역에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는 최적화된 정부 서비스와 갈라놓을 수 없다. "한동안 글로벌 다국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저조했고 전국적으로 외자 유치 형세가 준엄했지만 우리 성은 외자 유치 성장세가 강력했다. 이는 우리의 외국기업 서비스와 갈라놓을 수 없다." 성상무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 성

은 1개 기업에 상무서비스직원을 1명씩 배치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는 상무부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다. 올해 외국기업 좌담회를 여러차례 소집해 총 100여개 문제를 해결했다.

성상무청 관련 책임자는 우리 성은 향후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 프로젝트 전 과정 추적 기제를 구축해 프로젝트 디자인, 상담, 계약, 실시에 전 주기 관리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의 실시를 제고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전일제 제공하고 외국기업 원탁회의 개최, 상무서비스직원제도 실시를 통해 외국기업에 도와 각종 문제를 조정, 해결한다. 료녕일보

우리 나라, 중남미 5개 국에 무비자 정책 시행

우리 나라가 오는 6월 1일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으로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확대한다. 해당 정책은 오는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 시행된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언론브리핑에서 이들 5개 중남미 국가의 일반 려권 소지자는 출장, 관광, 친지 방문, 문화 교류, 단순 환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에서 30일 이내로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와 중국간 려행은 한 때 비자문제 뿐만 아니라 먼 거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항공 려결성이 향상되고 비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거리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온라인 관광 플랫폼의 데이터는 중남미 5개 국의 인바운드 관광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 씨트립은 올해 아르헨티나의 인바운드 관광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으며 브라질과 칠레의 주문은 8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특히 '중국-중남미 국가공동체(CELAC) 포럼'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거뒀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중남미 국가간 무역은 두배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5,184억 7,000만달러에 달했다.

손양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남미연구소 집행소장은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무비자 정책은 중남미 기업가,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 방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전 4개월, 우리 성 사회소비품 매출 3,313억 8,000만원

올해 이래 전 성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전 4개월 전 성 사회소비품 매출은 3,313억 8,000만원으로 동기 대비 6.8% 증가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전 26개월 전국 평균수준을 초과했다. 그중 전 성 한도액 이상 단위 소비품 매출은 1,512억원으로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데이터를 통해 소비품 이구환신 등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전제품, 가구·인테리어 업계 시장의 성장세가 랑호했다. 한도액 이상 단위 상품 판매 류형별로 가전제품과 음향기기 매출은 동기 대비 97.1% 증가, 가구류 매출은 동기 대비 90.7% 증가,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매출은 동기 대비 80.1% 증

가, 통신기기 매출은 동기 대비 41.7% 증가했다.

정책 지원 강도 확대가 올해 료녕 소비시장 활력이 왕성한 중요한 원인이다. 올해 이래 우리 성은 3연속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출범했다. 특히 <료녕성 소비진작 6조 정책>을 전문 제정해 소비 적극성 활성화, 경영주체 육성, 장대, 론칭 경제 격려 등 방면으로 정책 지원과 인도를 강화했다. 성상무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업 무역 분야 경영주체의 육성 장대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신고 면제 즉시 향유 방식으로 정책규정에 부합하는 경영주체에 월 10만원의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여 상업 무역 류통 분야의 경영주체 발전, 장대를 진

일보 인도, 육성할 예정이다.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 범위 확대의 소비적인 작용이 특히 뚜렷했다. 성상무청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성은 3C 제품을 최초로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전제품 지원 종류를 지난해의 8가지에서 올해 20+X가지로 확대해 민생 혜택, 소비 촉진, 강력한 뒤집에 중시를 돌렸고 이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올해 전 4개월, 총 279만 5,000명 소비자가 전 성 상무분야 소비품 이구환신 활동에 참가해 28억 8,000만원의 소비 보조금을 받았고 235억 5,000만원 이상의 소비를 직접 견인했다.

성상무청 관련 책임자는 우리 성은 계속해서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 조성에 힘을 기울이라고 소개했다. '여름

의 운치 가득, 환상적인 여름'을 주제로 각 지역에서 맥주축제, 음악축제, 음식축제, 캠핑축제 등 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상업, 관광, 문화, 체육, 피트니스가 융합된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연예인들이 료녕에서 콘서트와 공연을 열고 다양한 예술 전시회 및 주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료녕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성은 국가 및 성의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을 철저히 리행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6가지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며 론칭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해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소비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료녕일보

우리 나라 가전 판매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성장

하영전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 기준 가전 소매 판매액이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특히 년간 매출이 500만원 이상인 소매업체의 가전 제품 및 음향·영상기기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해 주요 소비재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3,4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중고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또 랭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12가지 주요 가전제품은 5,100만대 이상이 팔려 1,74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특히 년간 매출 500만원 이상 소매업체의 1~4월 가전제품 및 음향·영상기기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3,46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점 도시에선 정수기, 주방 후드,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오프라인 판매액이 각각 45.3%, 42.0%, 40.4%, 2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월 폐기된 각종 가전제품은 25% 증가한 700만대 이상에 달했다. 신화통신

화금 아랍코 프로젝트 부대 부두 건설 가속화

최근 화금 아랍코 정밀화공 및 원료 공정 프로젝트 부대 부두 건설이 한창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8개 부두는 프로젝트 원료의 효율적인 수입과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힘있게 보장하여 전체 산업사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대 부두 건설 현장이다.

료녕일보



우리 나라 스포츠용품 산업 수출·내수 모두 강세

<중국 스포츠용품 산업 년간 발전 보고서(2024)>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의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2.39% 성장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2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스포츠용품 제조업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7.3%, 3.9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여러 제조업 부문을 상회하는 실적을 세웠다.

지난해 스포츠용품 수출액도 전년 대비 6.77% 증가하며 약 284억달

러로 반등했다. 북미와 서유럽으로의 수출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베트남, 태국,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등 신흥시장도 상당한 잠재력을 드러냈다.

국내 수요도 강한 모멘텀을 보였다. 보고서는 정동, 토우보우, 티몰, 틱톡 등 우리 나라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4곳의 거래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온라인 스포츠용품 판매액이 전년보다 22.59% 늘어난 3,337억 4,500만원으로 집계했다. 신화통신

지난달 우리 나라 상품무역 5.6% 증가... '신인프라' 항구 일등공신

지난달 우리 나라의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3조 8,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대규모 물류 흐름'을 이끄는 우리 나라의 항구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항구 물동량은 대외무역 활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무호항은 안휘성내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무호항의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늘어난 무적 939만 7,700톤으로 집계됐다. 그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57만 4,300TEU로 11.40% 확대됐다.

실의 대표 프로젝트로 꼽히는 '잔카이-상해' 해운 항로는 올 1~4월 무적 48회의 정기 로선을 운항했다. 이를 통해 상해세관은 4만 1,000톤의 수출입 화물을 감독·관리했다. 화물 가치로는 10억 2,000만원 규모다. 덕분에 같은 기간 상해의 대 페루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급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주항의 올 1~4월 대외무역 화물 물동량은 17.49%, 대외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21.91% 늘어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리수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남미 서안으로 향하는 첫 직항 로선인 WSA3 항로를 개통해 월항오 대만구와 남미 서안 지역간 물류 통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고효율·스마트·록색으로 대표되는 항구의 '신인프라' 역시 대외무역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안휘성 합비항 파하(派河) 항구 구역에서는 국산 자동차 330대를 실은 자동차 로로선 '항통(航通)01호'가 출항했다. 해당 선박은 강회(江淮) 운하를 거쳐 장강으로 진입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로 운송된다. '이동식 기계 주차장'에 버금갈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춘 자동차 로로선은 도로 운송에 비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올 1분기 안휘항항(港航)그룹 소속 항구에서는 총 2만대의 자동차를

원양 로로선으로 운송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4% 확대된 수치다.

상해 양산(洋山)항 4기 자동화 부두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중 컨테이너 자동화 크레인 레일을 통해 야적장의 작업 효율을 두배로 높였다.

천진그룹 역시 항구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작업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또한 항구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화물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 구조도 최적화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4월 일반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난 1,144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0%를 차지했다. 신화통신

국내 마라톤 열풍 지난해 168억원 이상 소비 창출

올마 전 발표된 <중국 로드레이스 인구의 소비, 대회 경제의 발전 추세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륙 상협회가 인정한 로드 레이스 대회 참가자의 년간 소비 총규모는 168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그중 의류·신발·모자, 웨어러블 전문 장비, 대회 참가비, 건강 및 재활, 스포츠 영양제 구매 등 직접 소비는 98억원을 넘어섰다. 대회 참가로 파생된 식사·숙박·이동·여행·쇼핑·오락 등 간접 소비는 69억원 이상

이었다. 이 밖에 중로년층 러너의 경우 '대회 참가 겸 여행' 특징이 두드러졌다. 타지역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일찍 와서 늦게 가는' 경향을 보였다. 로드레이스 대회에서도 '실버경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향후 로드레이스 대회의 공급 최적화, 대회 시나리오 혁신 및 정책 시스템의 개선에 따라 로드레이스 경제가 스포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